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table border="1"> <thead>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td> </tr> <tr> <td>①</td> <td>15</td> <td>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td> </tr> <tr> <td>③</td> <td>15</td> <td>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td> </tr> <tr> <td>④</td> <td>최고점 13</td> <td>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td> </tr> </tbody> </table>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3">옹호의 경우</th> </tr> <tr> <th>구성</th> <th>배점</th> <th>핵심 키워드</th> </tr> </thead> <tbody> <tr> <td>서론</td> <td>5</td> <td>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td> </tr> <tr> <td>①</td> <td>15</td> <td>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td> </tr> <tr> <td>②</td> <td>15</td> <td>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td> </tr> <tr> <td>④</td> <td>15</td> <td>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td> </tr> <tr> <td>③</td> <td>최고점 13</td> <td>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td> </tr> <tr> <td>⑤</td> <td>최고점 13</td> <td>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td> </tr> </tbody> </table>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은 경제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그림1], [그림3]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림2], [그림4]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고 기준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는 반환하도록 하는 법을 다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한다면, [그림1]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림3]에서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누진적 조세 제도와 재분배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언급한다. 이처럼 능력에 따른 고용 제도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농업, 상업, 공업 분야 등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를 실업 급여와 연계하여 [그림4]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②는 민중이 '햇살 따가워질수록'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짐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그림1]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그림2]의 작가·작곡·편곡가, 가수 등이 노동조합 조직과 집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분배적 정의의 확립을 촉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

- ④는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는 교수를 통해 번역 업계 수익 구조의 불공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그림2]의 가수 등이 수익 구조에서 소외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⑤는 생명체의 유전자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설명하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여러 형질로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처럼 노·사·정 간 꾸준한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림1]과 [그림2]의 노동시장 불평등 및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옹호의 경우>

- ⑦은 공장제 수공업 등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현상과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 양극화와 억압적 사회 구조 속의 약자를 보여주는 ①, ②와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④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옹호할 수 있다.
- ①은 유력자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해 농민층이 생산 기반인 토지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나 계층 갈등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⑦의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생산 능력이 억압당하고 파편화된 상황과 통한다.
- ②는 따가운 '햇살' 등 자연 현상으로 비유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쓰러지고 쓰러지는' 벼의 모습을 통해 무고한 민중의 고달픈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민중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약자의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⑦의 자본주의로 인해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왜곡당하고 마음이 황폐해진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과 통한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하며,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교수와 교수의 경제력에만 집착하는 처의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⑦에서 비판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고 특수한 기능만 촉진하여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통한다.

<추가>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각각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도 있어야 국부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 ⑤는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이 3 염기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인간을 DNA와 단백질이라는 구성요소로만 파악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의 경우>

- ⑦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를 소외시켜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 분업의 효율과 가치를 강조한 ②, ③, ⑤를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 ②는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벼의 생명력과 속성에 빗대어 노래한다. 이는 억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민중의 주체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⑦에서 자본주의 속 노동자가 파편화되고 자아실현에 가로막혀 마음이 황폐해지고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과 배치된다.
- ③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아울러 다스리는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업무 간 효율을 증대시키는 생산 방식이 국부를 넉넉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업의 효율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업이 특수한 기능에만 숙련된 노동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비판하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 ⑤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즉,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형질 발현, 생명 현상 유지처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생명체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업적 생산 방식이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추가>

- ①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제공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가 대농장 경영주와 자영 농민층의 계급적 사회 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급 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초래한 계층 갈등, 사회 양극화가 노동자의 소외와 파편화로 귀결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다. '교수'는 물질에 종속된 '치'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피곤하다고 말하며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또한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이 행복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장남'의 말을 통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자본주의로 인해 인간이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5. 문항 해설

- 1번 문항은 그림1~그림4에서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문 ①~⑤를 통해 제안하는 문항임.
-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낮아지는 잠재 성장률, 그림3은 고령층의 수입과 지출 불균형, 그림4는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고갈을 보여줌.
- 제시문 ①은 생명과 역사의 연속 문제, 제시문 ②는 대공황 상황에서 뉴딜 정책과 같은 정부 정책, 제시문 ③은 두레 공동체, 제시문 ④는 한국어의 위상, 그리고 제시문 ⑤는 지능형 전력망을 다루고 있음.
- 1번 문항의 답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세대 간 화합을 포함한 개인 인식 차원의 해결책과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를 포함한 정부 정책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안할 것을 기대함.
- 2번 문항은 제시문 ①~⑤ 가운데 세 개의 제시문을 근거로 삼아 공동체와 개인에 관한 제시문 ⑦을 옹호 또는 비판함.
- 2번 문항의 답으로 공동체를 연속된 역사의 기억과 기념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옹호하는 입장 또는 공동체를 개인의 희생 또는 갈등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 비판하는 입장을 기대함.

6.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③, ④,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7. 예시 답안 혹은 정답

하위 문항	예시 답안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잠재 성장률 감소, [그림3]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제적 어려움, [그림4]는 국민연금·기금 적립금 고갈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①'버팀목'은 죽은 나무는 산 나무를 살리고, 다시 산 나무는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린다. 서로 다른 세대가 동반자 관계로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세대 화합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정의의 태도를 가진다.
- ③은 '노동'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말한다. 양성평등 가치에 기반하여, 가족 공동체 내에서 공동 가사,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②은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설명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실버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교육과 인력개발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전 연령대의 고용을 통해 청년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기금 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

<추가>

- ④를 활용한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증가는 한국 취업, 결혼, 유학 등의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성장을 감소시킬 수 있고 국민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를 활용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률 감소를 완화시키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옹호'의 경우>

- 2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① ② ④를 통해 옹호할 수 있다.
- ①에서 산 나무는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앞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자긍심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바탕이 된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 ②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애국심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른 맹목적인 미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 ④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잊혀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어가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다. 한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지켜낸 경험과 자긍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한국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추가>

- ③을 활용할 경우: ③은 '두레'라는 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통일과 화해를 이루고자 함을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며,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는 경험의 공유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내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 ⑤를 활용할 경우: ⑤에서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 수송 방식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발전소와 소비자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력 생산과 공급,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재발견해 낼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미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공동체들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비판'의 경우>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③ ④ ⑤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
- ③은 두레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은 불가항력의 운명에 따른다는 '숙명적 인생관'을 보인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면 도덕적 의무감이 생겨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④는 한국어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고서도 한국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는 문화 공화국이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⑤는 전력 공급 시설과 소비자 간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을 소개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소와 소비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다. 이는 ⑦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를 한 방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시민을 수직적으로 관계짓는 닫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다.

<추가>

- ①을 활용할 경우: ①은 버팀목과 산 나무의 관계를 통해, 과거는 사그라져 현재를 세우고 현재는 빛나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 사그라져야 하는 순환적 소멸을 보여준다. 과거가 현재에 사라진다는 입장은, 과거의 기억과 재발견이 현재와 미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②를 활용할 경우: ②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은 시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에게 공화주의적 덕성과 도덕적 의무감을 요구하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